

윤대녕 소설의 여행구조와 여성타자 연구

- 「신라의 푸른 길」, 「피아노와 백합의 사막」과
『눈의 여행자』를 중심으로

이 미 립*

차 례

1. 머리말
2. 여행구조 및 여행의미
3. 탈근대 남성여행자에 포착된 길 위의 여성
4. 아이와 여성타자의 타자성 수용
5. 요약

80년대의 거대담론이 소멸하면서 자아 찾기에 골몰하는 90년대에 들어 나아
한 주인공이 방황하는 여행소설이 대거 발표되었다. 정착-떠남-정착의 원점회
귀 구조를 지닌 여행소설은 「만세전」, 「무진기행」과 같이 문학사적 자리매김을
하는 장르문학이다. 자본주의가 정착한 후 비진정성의 공간인 도시를 떠나 진
정한 자아 즉 동일자를 찾아나서는 여행자가 등장하였다. 여행소설이라는 일관
된 작품세계를 구축하는 반복형의 작가인 윤대녕 문학의 여행구조는 조우를 통
해 타자의 타자성을 수용하는 과정을 위한 문학적 장치이다. 탈출과 여행을 욕
망하는 것은 만남을 욕망하는 것이며 자신의 변형된 자아의 존재인 길 위의 여

* 강릉대 문화산업대학 여성인력개발학과 부교수

성을 갈망하고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여행자는 여성, 달, 사막, 눈, 겨울과 같은 음의 이미지로 여성의 가치가 중시되는 시대임을 피력하면서 자기동일성을 찾아 헤매지만 탈근대 남성여행자의 시선에 포착된 여성들은 성적(性的)·성적(聖的) 이미지가 혼효된 비현실적인 여성이다. 훔쳐보기의 대상이 되는 길 위의 여성은 동일자인 동시에 신비하고 에로틱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타자일 수밖에 없다. 초기 여행소설에 나타나는 소통부재와 현실도피가 『눈의 여행자』에 와서는 여성타자의 타자성을 수용하고 화해하려는 변화를 보인다. 여행자는 타자가 된 나인 아이를 통해 자신에게로의 영원한 회귀로부터 해방된다. 윤대녕의 문학은 작가 나이 마흔 이후 타자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타자인식과 여성의식이 변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어 : 여행소설, 관계형성, 소통부재, 탈근대 남성여행자, 반복형의 작가, 바다/사막/눈의 상징성, 타자의 타자성, 훔쳐보기

1. 머리말

윤대녕 문학은 미학적 문체와 몽환적 무드를 배경으로 본질을 찾아가는 항해, 존재의 시원을 찾는 여정이란 일관된 주제의식과 여행구조를 특징으로 한다. 윤대녕은 ‘시적 상상력으로 소설을 쓰는 작가이자 60년대의 김승옥과 같이 90년대 도시적 감수성을 드러낸 작가’¹⁾, ‘90년대 문학지평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작가’²⁾로 평가받는 90년대의 대표적인 소설가이다. 윤대녕에 대한 찬사³⁾와 비판⁴⁾을 담은 평론들이 쏟아

1) 이남호, 『은어는 없다』, 『세계의문학』, 1997. 봄호, 479~484쪽.

2) 고명철, 『쓰다의 정치학』, 새움, 2001, 259쪽.

3) 윤대녕 문학의 고평으로는 주로 미학적 관점인 언어의 술사, 존재의 시원이라는 주제의식, 90년대 감성을 잘 드러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표적인 평으로는 김윤식, 『시원을 찾아 거슬러 올라가는 생리적 상상력의 힘』, 『문예중앙』, 1994. 가을호,

져 나왔으며, 90년대 문학의 특징을 설명할 때 윤대녕은 신경숙과 더불어 대표적인 사례가 되곤 한다. 정통적 리얼리즘 기법이 쇠퇴하고 내면에 대한 성찰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숙의 신화와 윤대녕적인 감수성이 90년대를 이해하는 데 요긴⁵⁾하다는 것이다.

윤대녕은 일관된 작품세계(여행소설)를 구축하는 반복형의 작가이다. 그의 소설은 자기 정체성의 결핍에 유난히 시달리며 자신의 참모습을 찾는 일에 강한 집착을 보여주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⁶⁾이다. 그의 소설에는 삶의 무의미를 극복하기 위해 여행을 떠나 여성을 만나 일탈하고 별다른 깨달음이나 변화 없이 다시 일상으로 회귀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다. 세상이 상처를 주고 불안감을 조성하므로 30대 남자는 길을 떠나고 타자들을 만나고 존재에 대해 생각하고 환청과 환시에 시달리다가 전망 없이 귀환한다. 주인공은 관계맺음에 서툴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수동적·관조적·내성적인 자세로 세상을 보는, 상처받은 인물들이다.

본고는 윤대녕 여행소설의 핵심을 소통부재, 관계형성의 어려움으로 여겨 여행자가 타자의 타자성⁷⁾을 수용함으로써 자기로부터 해방될 수

남진우, 「존재의 시원으로의 회귀」, 『은어늬시통신』, 문학동네, 1994, 우찬제, 『윤대녕론』, 『문학동네』, 1996. 겨울호, 방민호, 「사유의 빈곤」, 『소설과사상』, 1999. 가을호, 이남호, 「은어는 없다」, 『세계의문학』, 1997. 봄호 등이 있다.

4) 윤대녕 문학의 비판으로는 좌절과 회의에 대한 답의 부재, 리얼리즘 전망의 부재, 현실과의 거리감, 이미지 중심의 글쓰기의 자본주의적 요소 등으로 요약된다. 대표적인 평으로는 김경수, 「윤대녕 소설을 비판한다」, 『소설과사상』, 1995. 봄호, 류준필, 「부재로서만 빛나는 세계」, 『문학동네』, 1995. 겨울호, 한만수, 「먹고살기와 존재 찾기」, 『창작과비평』, 1999. 가을호, 고명철, 「쓰다의 정치학」, 새움, 2001, 방민호, 위의 글, 황도경, 「미끄럼틀 위의 삶 혹은 전설」, 『작가세계』, 2001. 겨울호 등이 있다.

5) 이광호, 「소설이 몸을 바꿀 때」, 『소설은 탈주를 꿈꾼다』, 민음사, 1997, 20쪽.

6) 이남호, 앞의 글, 485쪽.

7) 레비나스에 의하면 타자의 타자성(alterité de l' autre)이란 동일자의 논리를 벗어나는, 있는 그대로의 타자의 모습을 말하며 타자의 타자성을 수용하는 것은 자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종영, 『가학증 타자성 자유』, 백의, 1996, 138쪽.

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영원회귀, 자기회귀라는 주제의식을 구축한 윤대녕은 마흔 이후 아이로 상징되는 타자와 여성타자에게로 관심이 바뀌게 된다. 또한 자신의 진정한 자아임에도 불구하고 타자성을 지닌 여성 이미지 고착화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윤대녕 문학의 특징인 여행구조는 여성과의 조우와 연관되고 있다. 연구대상작품을 『신라의 푸른 길』(1994), 『피아노와 백합의 사막』(1995)과 『눈의 여행자』(2003)로 선택한 이유는 여행구조가 잘 드러나고 있으며 문학적 변모를 아울러 살펴보기 위함이다.

2. 여행구조 및 여행의미

여행소설은 정착-떠남-정착 혹은 안주-여행-안주 플롯인 원점회귀의 순환구조로 이루어진 소설⁸⁾이다. 인간은 누구나 가정과 집에 안주하고 정착하고자 한다. 그러나 여행자는 정착하고자 하는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다. 안주하고자 하는 욕망과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충하고 길항하게 되는데 여행자는 정착, 떠남, 정착회복의 과정에서 정착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을 여행 중에 내면탐색과 자기반성, 심리변화를 통해 사유한 후에 귀환하게 된다.

윤대녕 소설의 기본 구조는 여행이다. 소설 속의 여행자는 단순한 관광객이나 여행가가 아닌 시대와의 불화를 겪고 있거나 시대의 목표나 이념에 대한 정합성을 갖지 못해 늘 불안한 상태이거나 잃어버린 것을 찾아 나서는 떠돌이이자 아웃사이더⁹⁾이다. 자본주의의 정착은 현대인들에게 실존적 진정성의 상실을 가져왔고, 따라서 진정성을 추구하고

8) 이미립 외, 『우리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30쪽.

9) 위의 책, 35쪽.

의미를 찾는 한 형식¹⁰⁾으로 볼 수 있다. 윤대녕 소설 속의 여행은 존재 시원으로의 회귀¹¹⁾, 문학적 성찰의 한 방식과 현존재에 대한 물음¹²⁾, 자아 찾기를 위한 도정¹³⁾, 과거로의 여정¹⁴⁾, 일상에 대한 지켜움과 무의미함으로의 도피¹⁵⁾ 등으로 해석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자기 욕망이 강한 아내와 불화하는 여행자가 자신의 변형된 자아인 길 위의 여성과 일탈하지만 후기로 오면서 자아중심이 아닌 타자와의 관계를 형성하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여행을 추동하는 아내는 타자로서의 상징성을 갖는다. 결국 타자의 매개를 통해 자기에 관해 말한다는 것은 사회화 과정의 입문, 문화적인 관계의 확립이자 타인과 나누는 자기의 재현¹⁶⁾이다.

『신라의 푸른 길』은 ‘내’가 경주에서 동해로 여행을 하던 중 한 여인을 만나 대화를 나누는 길 위(버스 안)의 구조를 지낸다. “다시금 나는 떠나지 않고는 배길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길을 나선 여행의 계기가 일차적으로는 문화부에서 기획특집부로 부서를 옮긴 것에 대한 불만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부처들(경주의 석굴암 본존불과 동해에 사는 생불

10) 낭왕, 이진형 외역,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2004, 326쪽.

11) 남진우, 「존재의 시원으로의 회귀」, 『은어남시통신』, 문학동네, 1995, 287쪽.

이재복, 「동양적 존재의 숲」, 『소설과사상』, 1996. 겨울호, 219쪽.

윤숙영, 「윤대녕 소설의 원형적 이미지 연구」, 『동국어문학』 제15권, 2003, 281쪽.

민혜숙, 「신화적 상징을 통한 윤대녕 소설 읽기」, 『현대문학이론연구』 제29권, 2006, 140쪽.

장석주 「도망가는 나와 나를 부르는 산란중인 그녀들」, 『작가세계』 제51호, 2001. 겨울호.

12) 이정욱, 「윤대녕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3, 59쪽.

13) 박철화, 「역사로부터의 탈출과 역사의 부재」, 『문학적 지성』, 이룸, 2004, 223쪽.

양진오, 「여행 하는 영혼과 여행의 소설」, 『작가세계』 제27호, 1995. 겨울호, 83쪽.

김명석, 「한국현대소설 속의 돈황」, 『현대소설연구』 제25권, 2005.3, 108쪽.

14) 고명철, 앞의 글, 188쪽.

15) 류준필, 앞의 글, 69쪽.

16) 말레 슈벨, 서민원역, 『욕망에 대하여』, 동문선, 2001, 41쪽.

삼촌)을 만나기 위해서이다. 여정은 서울→경주(불국사역→토함산→경남여관→동산령, 석굴암→중앙동 시외버스 터미널)→나원→사방→영일만→포항→덕성→광천→대진→영덕 시외버스 정류장→병곡 휴게소→평해→울진→양정·봉평 해수욕장→죽변 휴게소→삼척→동해까지의 칠번 국도를 따라 6, 7시간 동안의 버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길 위의 여정이다.

“불현 듯 행장을 꾸리고 떠난” 여행에서 나는 노랫가락에서 맷힘과 얽힘을 느끼고 그것을 풀기 위해 석굴암 부처와 칠번 국도의 풍광을 찾아 나선다. 나는 절실한 목적 없이 선택한 경주에서 “수두에 걸린 듯한 맑은 얼굴로” 아미타불을 친견하고 “미열에 들떠” 강릉행 직행버스의 동해까지 가는 표를 끊고 찾집에서 차를 마신다. 여행자는 차(기차, 버스, 택시 등) 속에서의 흔들림, 질병, 낯선 것에 대한 이방인으로서의 불안정한 상황 때문에 무기력함과 피로를 느끼며 때론 긴장감과 해방감으로 인해 무절제와 방종으로 이끄는 리미노이드¹⁷⁾적 상태에 이른다. 여관, 찾집, 기차, 버스 등의 여행 공간은 전기적 삶이 진행되지 않으며 가족 혹은 집과의 관계가 단절된 곳¹⁸⁾이다.

『피아노와 백합의 사막』은 영원회귀의 역시간여행의 여로¹⁹⁾ 구조를 지닌다. 내가 계획에도 없었던 실크로드 여행을 결정하게 된 것은 어린 시절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는 날에 사막이란 말을 처음 듣게 되면서 사막에 대한 막연한 동경심에서 시작된다. 한 친구와 함께 사막에 가자고 약속을 했지만 곧 잊혀졌고 선배의 실크로드 여행을 제안 받은

17) 리미노이드, Liminoid라는 개념은 빅터 터너의 용어로 역치성(Liminality, 역치성: 문지방, 한계)을 의미하는데 일상 생활의 바깥 혹은 그 주변의 모든 조건으로 일상적 실존의 기본적 정치·경제적 사건 및 과정과 무관한 조건을 의미한다. -윤병국 외, 『여행과 생활』, 형설출판사, 2004, 15~16쪽.

18) 이미립 외, 앞의 책, 40쪽.

19) 우찬제, 『윤대령론』, 『타자의 목소리』, 문학동네, 1996, 437쪽.

나는 친구를 찾아 나선다. 사막에 대한 단상과 친구와의 회상은 우연하고도 급작스럽다. 어느 날 모래가 쏟아지는 꿈을 꾸게 되고 우연히 사막 비디오테이프를 보게 되면서 잊고 있었던 사막과 친구를 연상한다. 이러한 과정이 우연과 돌발²⁰⁾로 이뤄진다. 삶의 매너리즘과 안정감에 빠져 사는 동안 친구는 시인이 되었고 투병 중에 있다.

여행은 현실과 타협하여 안주하고 있는 내가 잃어버리고 있었던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임을 보여준다. 나의 여정은 김포공항→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건물, 홍구공원, 옥불사)→서안(진시황릉, 화청지, 병마용)→난주(가무청술집)→주천(가옥관)→투르판→안서→쿠알라(여관)→쿠차(야시장)→우루무치→쿠알라(천산복로)→상해로 11박 12일의 원점회귀 구조를 이루고 있다. 식사는 거의 하지 않은 채 술로 배를 채우는 나는 “미열에 들떠 겨드랑이에 식은땀을 흘리며” 사막을 방황하다 일상에 복귀한다. 피아노가 있는 사막은 쇼팽의 녹턴을 잘 쳤으

20) ① 불쑥 가까운 사람의 달라진 모습을 보는 것도 두렵지만, 그러한 자신을 목격하는 일은 더더욱 두려운 일이다. (251쪽)

② 송갑영이란 그 친구가 느닷없이 서울로 전학을 가게 된 것이다. (255쪽)

③ 약 십 분이 될까 말까 한 그 시간 동안에 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홀연 눈앞에 사막의 풍경을 보고 있었다. (258쪽)

④ 그것은 우연이란 복면을 쓰고 슬쩍 내 옆구리를 찌르며 다가왔다. (260쪽)

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261쪽)

⑥ 사막은 끈적끈적해, 라고 중얼거리며 나는 무려 십수 년 전에 헤어진 송갑영이란 친구를 문득 떠올리고 있었다. (264쪽)

⑦ 우연찮게 <살아있는 사막>을 목격한 얼마 후, 나는 실크로드를 답사하러 가는 대학 선배의 전화를 받았다. (264쪽)

⑧ 아내는 이 돌연한 여행 계획에 반대하는 이유를 조리 있게 설명했다. (367쪽)

⑨ 불과 몇 초 사이였지만 나는 내가 이렇게 불쑥 찾아온 것이 정말 잘한 일인가라는 확신을 못한 채 그저 다음 순간에 모든 걸 맡겨두고 있었다. (270쪽)

⑩ “이렇게 <문득>이 아니고는 전화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어쨌든 늘 <문득>이 있을 테니까.” (270쪽)

⑪ “문득 말이지?” (270쪽)

며 함께 사막을 이야기했던 친구와의 기억 속의 공간이며, 백합의 사막은 여류화가가 준 구근으로 새로운 관계를 맺는 현재의 상황이다. 이들은 나의 분신이며 또 다른 나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족한 것 없이 중심부에 정착했지만 끝없는 상실감과 소외감이 나를 떠나게 하고 있다.

『눈의 여행자』는 여행소설이자 소설가소설이다. 90년대 들어 작가들은 소설 쓰기의 어려움을 토로²¹⁾하며 ‘소설쓰기의 소설’을 모색하였다. 소설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에이전시 소속작가인 ‘나’는 생활비를 받고 있지만 일년이 넘도록 계약한 원고를 넘기지 못하고 있다. 원고독촉이나 계약위반을 추궁하는 에이전시 직원에게서 나는 일본으로 꼭 외주길 바라는 어느 독자의 편지를 건네받는다. 나는 눈에 대한 소설을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으며,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독자로부터의 청원과 여행을 원하는 에이전시의 청탁, 소설을 쓰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아이를 찾기 위해서 일본여행을 결심한다. 이 소설에는 두 가지 사연이 겹쳐지며 전개되는데, 그 하나는 일본 거주 독자가 죽은 아이의 이 열 개를 차례로 묻으며 자식을 놓으려는 제의과정을 추적하는 내용이다. 또 하나의 줄기는 소설가가 여행을 결심하게 된 궁극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과거의 상처가 일본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외면적으로는 독자의 상처를 탐색해가는 플롯이지만 그것은 곧 소설가인 나의 상처를 탐색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여행자이자 소설가인 나의 여정은 한국(서울: 소설가의 집 → 중국식당 ‘공을기’ → 재즈바 ‘피아노’ → 인천공항) → 일본(니가타공항: 인포메이션 센터 → 선루트 호텔 608호 → ‘설의 움’ 술집) → 아키타(오가 호텔

21) 양귀자의 『숨은 꽃』이 대표적이며 이순원의 『말을 찾아서』, 홍상화의 『능바위 가는 길』, 조성기의 『통도사 가는 길』, 김승희의 『산타페로 가는 사람』, 신경숙의 『깊은 숨을 쉴 때마다』 등에서 원고 청탁 취재나 문학대회 참석 등의 이유로 작가들이 여행을 떠나고 있다.

306호 → ‘난만’ 주점 → 호텔 → 바닷가 도깨비 동상 → 대형수족관 → 정상 전망대 → 도깨비 전시관 → 아키타역 → 다자와코역(인포메이션 센터) → ‘학의 탕’ 14호실, 7호실 → 매점 → 아키타(하와이 호텔 → 가와바타 ‘남원집’ → 시립미술관 → 쇼핑몰 → 시민시장 → 포러스빌딩 → 퓨전식 레스토랑 → 가와바타 ‘남원집’ → 호텔) → 요코테(플라자 호텔 882호실 → 대형 슈퍼마켓 → 호텔) → 오마가리 → 가쿠노다데 → 요코테 플라자 호텔 603호실 → 터미날 → 시계점 → 그릇가게 → 유럽식 커피숍 겸 패스트푸드점 → 시청 → 가마쿠라 체험관 → 호텔 → 야마가타의 신주 → 요코테 ‘남원집’ → 선루트 호텔 → ‘설의 음’ 술집) → 니가타공항까지의 보름간의 여행이다.

『눈의 여행자』는 서울에서 출발하여 다시 서울로, 니가타 ‘설의 음’에서 다시 ‘설의 음’으로 되돌아가는 원점회귀의 순환구조로 되어 있다. 사연을 모른 채 추측만으로 여성독자의 일정을 쫓는 과정은 기이하고 몽환적이며 음산하고 엽기적이기까지 하다. 나는 치통과 천식에의 고통으로 환영에 사로잡힌다. 도깨비들이 몰려오는 환시와 아기 울음소리를 여행 내내 듣게 되는 환청에 시달리며 눈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여행자가 여행 내내 들었던 아이의 울음소리는 눈의 소리와 동일시되어 작가를 따라다닌다. 이 소설의 배경 또한 호텔, 여관, 술집, 기차역, 기차 안, 주점, 인포메이션 센터와 같은 길 위의 공간이다.

여행자는 시사주간지 기획특집부의 기자(『신라의 푸른 길』), 재벌그룹 산하의 증권회사 직원(『피아노와 백합의 사막』)이거나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있는 소설가(『눈의 여행자』)이다. 세련되고 도회적이며 지적인 도시민인 여행자는 포스트모던 문화적 공간과 기호 속에서 소비하고 생활하는 디지털 시대의 엘리트인 보헤미안 부르주아(Bourgeois Bohemian) 즉 보보스(Bobos)²²⁾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금고에 갇혀 사는 남자”(『눈의 여행자』)들은 일상생활을 “투구게처럼 갑갑하게 느끼면서”(『신

라의 푸른 길』) 훌쩍 떠나곤 한다. 그들은 사막과 눈과 바다의 부름을 향해 달려가지만 사실은 불완전한 결혼생활, 소통부재, 관계형성의 어려움과 같은 현실로부터 도피하고 있다. 여행자의 불화와 갈등은 개인과 사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개인과 가족, 개인과 개인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다. 여행자는 부부 사이조차도 낯선 동반자처럼 여기며 자기 속의 타자인 길 위의 여성과의 관계에서도 생소하게 느낀다. 『피아노와 백합의 사막』에서는 나의 돌연한 여행을 반대하는 아내와 “서로가 서로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잠자리에 들거나, 『눈의 여행자』에서처럼 “한 집에서 남남처럼 살기, 여관이나 호텔에 들어가도 각자 트윈 베드 쓰기, 따로 벌여 따로 쓰기”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여행지는 달의 고도(경주), 바닷길(강릉-동해), 사막(중국 실크로드), 설국(일본)과 같이 환상적이고 비현실적인 곳이다. 이러한 장소는 여성, 자연, 재생, 죽음, 정화 등의 여성적·원형적·신화적 의미를 담게 되며 비의적(秘意的)이고도 탈속적(脫俗的)인 분위기를 만든다. 달과 바다와 사막(모래의 바다), 눈(겨울)은 음의 이미지로 여성과의 조우나 만남의 배경으로 적합하다. 여행의 계기는 부처, 사막, 눈과 같이 상징적이고 관념적인 이유를 제시하지만 관계형성의 실패로 떠난 여행에서의 새로운 만남을 위해서이다. 특히 낯선 여자와의 조우는 운대령 여행소설의 핵심구조와 주제의식을 형성하고 있는바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욕망이 여행욕망을 낳게 되며 이는 자신의 변형된 자아의 존재와의 만남을 위한 필수적 요소가 되고 있다.

22) 보보스는 가시적인 개선을 추구하는 부르주아의 특성과 자아의 확장을 목표로 하며 예술을 중시하는 보헤미안의 영역을 합쳤으며 중산층에 해당한다. -데이비드 브룩스, 형선호 역, 『보보스』, 동방미디어, 2001, 67쪽.

3. 탈근대 남성여행자에 포착된 길 위의 여성

작가는 여성적 힘이 유용한 시대이므로 여성 혹은 여성적 이미지를 작품 속에 등장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여성적 원리로 사회를 보려는 그의 시도는 남성작가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낭만적·신화적·관념적인 여성들은 여전히 타자로 존재하고 있을 뿐²³⁾이다. 길 위의 여성들은 신화 혹은 설화 속에 존재하거나 꽃과 아이로 그려지며 대상화되고 있다. 여성이 지닌 근원 생리인 시원, 자궁, 문화, 자연 등의 여성적 원리로 세상을 보려는 작가²⁴⁾의 의도는 여성을 타자화시키고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여성과의 관계를 어렵게 한다. 탈근대 남성여행자의 시선에 포착된 여성의 몸은 훔쳐보기(scopophilia)나 쾌락적 시선에 의해 남성판타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목소리를 갖지 못한다.

『신라의 푸른 길』의 재현의 주체인 나는 옆자리에 앉은 안인숙을 “슬쩍슬쩍 비쳐 들거나” “결눈질로 훔쳐보면서” 여성을 전유한다. 그녀는 “드물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얼굴선”을 가진 외모로 나의 시선 속에 재구성되고 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여행자는 남성 주체의 시선으로 여성을 ‘병풍 속의 여인’, ‘수로부인’, ‘채송화, 감자꽃, 도라지꽃’, ‘신라 여인’²⁵⁾으로서의 근원적인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 나는 아내와의 불화를

23) 구모룡, 『사로잡힌 자의 비극적 감성』, 『소설과사상』, 1997. 봄호, 259쪽.

24) “제 작품에 여성, 혹은 여성적 이미지가 자주 등장하는 것은 역사와 권력을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남성적 힘(기능)보다 출산과 양육을 담당하는 여성적 힘이 지금 우리에게 보다 유용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 김윤식, 『윤대령론』, 『작가와 대화』, 문학동네, 1996, 295~296쪽.

25) ① 그리고 그 순간에 왜 오늘 아침 선잠 속에서 소경처럼 헛눈질을 하며 찾고 있던 아사녀가 떠올랐는지 나도 모르겠다. (41쪽)

② 나는 병풍 속의 여인처럼 미동도 않고 앉아 있는 그녀의 몸에서 풍겨나오는 분냄새를 맡으며 감자꽃 도라지꽃 하는 말들을 허황하게 읊조리고 있었다. (41쪽)

③ 더위에 지쳐 처마 아래서 줄기를 늘어뜨리고 있는 채송화처럼 말이다. (42쪽)

④ 그때 나는 아사녀가 아닌 신라 여인 아무개를 생각하고 있었던가. (45쪽)

다른 여자를 찾아 나섬으로써 해결하고자 한다. 여행 중의 여성들은 자기근친적 관계이지만 자기 동일성의 확장적 복원이라는 의도에도 불구하고 그 복원과정에 동력이 되어야 할 타자의 존재는 부지불식간 배제²⁶⁾되고 있다. 또한 그녀도 자신을 원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측과 상상은 남성중심적 사고에 기인한다.

『피아노와 백합의 사막』에서의 나는 누구인지도 모르면서 27살의 여류화가인 이영주와 관계를 맺는다. “어딘가 모르게 시선을 끄는 얼굴” 이외에 그녀의 실체는 드러나지 않는다. 단지 여자의 생리 냄새가 죽음의 냄새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와 관계를 통해 그녀가 수레에서 놓여났듯이, 나 역시 이영주(백합)와 송갑영(피아노)이 있는 사막에서 죽은 후 재탄생한다. 여성의 희생제의를 통한 남성의 재생은 관습적인 것이다. 현실에 환멸을 느낀 나는 여성을 자연으로 인식하고 타자화하면서 그녀의 진정성까지는 이르지 못한다. 나는 현실 속의 팽팽한 남녀사이에서의 대화나 소통을 곤혹스러워 함으로써 현실 밖의 존재이거나 비현실적인 여성과의 합일을 꿈꾼다.

『눈의 여행자』의 학대받고 성장한 외사촌누이는 통역대학원을 다니다가 출산을 위해 휴학 중이다. 인공유산을 주장한 나는 만삭이 된 누이에게 불같이 화를 내고 손찌검까지 하자 그녀가 일본으로 떠났던 것이다. 아이를 잃은 나와 아버지가 없는 아들 수, 폭행을 당한 누이는 상처 받은 가족들이다. 여행자는 일탈을 통해 자아를 찾고 존재감을 느끼지만 자기욕망이 강하고 자기 일을 성취하려는 여성과는 불화하고 있다. 여행자는 아내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은 채 길위의 여인과의 일탈로서 소통하고자 한다. 여성과의 싸움이나 대화를

⑤ “아무튼 이 바닷길을 수로부인과 함께 여행하게 되다니 감개가 무량하군요.” (47쪽)

26) 이성욱, 「내면 타자의 복원과 타자의 배제」, 『비평의 길』, 문학동네, 2004, 363쪽.

거부하면서도 “꼴에 아비라고” 라는 말 한 마디에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여성을 대등한 존재로 보지 못하고 인간 이상이거나 이하로 여기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남자들 사이에서는 결코 약하거나 한 번도 무릎을 꿇어보거나 고개를 숙인 적이 없는” 나는 어린 아들이나 사랑하는 여자 앞에서는 찢찢 매거나 뺨을 갈기는 만행을 저지르다가 결별하게 된다. 아이와 여성과의 관계맺음에 서툰 나는 안주하지 못하고 있다.

이 시대에 여성 이미지가 타자로서 유용하다고 작가는 주장하지만 여성주의가 제대로 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갖는다. 타자의 입장이 배제된 채 여성희생제의를 위한 재탄생과 일상/가정으로부터의 도피는 안일하고 설득력이 없다. 여행자의 훑쳐보기와 쾌락적 시선은 여성을 공공연한 향수적 욕망의 대상이거나 진정한 기원, 신화적 지시대상의 상징으로 그려내며 이는 자기분열과 실존적 상실로 교정되는 남성적 발전에 대한 지배적 서사²⁷⁾의 결과인 것이다. 작가는 의상, 외모, 표정, 직업 등의 정보를 독자에게 주고 있지만 여행에서의 스쳐지나간 만남 속에서 상상과 추측으로 재구성되기에 여성들의 내면의식이나 자의식은 드러나지 않는다.

자족적이고 추상적인 의미 범주에 갇힌 남성작가들의 여성 이미지²⁸⁾들이 여성주의를 주창하는 윤대녕에게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윤대녕 소설에 표상된 길 위의 여성들은 성적(性的)·성적(聖的) 요소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이는 자신의 논리에 따라 타자를 편집하고 재구성하는 동일자의 제국주의의 생산물²⁹⁾이기 때문이다. 길 위의 여성은 여행자의 변형된 자아인 동일자이면서도 동시에 타자성³⁰⁾을 지닌 타자일

27) 리타펠스키, 김영찬 외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73쪽.

28)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과 여성』, 아세아문화사, 2000, 137쪽.

29) 이종영, 앞의 책, 137쪽.

수밖에 없다.

4. 아이와 여성타자의 타자성 수용

남성작가들은 자율적·현실적이며 자기욕망을 가진 아내들의 자의식을 그리는데 정확성이 결여되고 있으며, 길 위의 여성 또한 주체적·자율적 여성상을 구현하지 못한다. 『신라의 푸른 길』의 나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난 아내와 불화하고 있다. 한 달째 연락이 없는 아내는 일상성에 자신이 마모되는 것을 경계했고 불임을 주장하는 이기적인 여자이며 나 또한 정착하지 못하는 기질 때문에 심각한 부부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아이와 가족을 이루기에 이들 부부는 소통하지 못하며 불완전하다. 나는 석굴암과 생불 같은 삼촌을 만나기 위해 서울-경주-동해로 이어지는 여정을 나서는데, 칠번 국도³¹⁾를 달리는 버스 안에서 한 여인과 옆자리에 앉으면서 말을 섞게 된다. 안인숙은 34살 동갑으로 음악선생이며 딸이 하나 있고 친정아버지 병간호로 경주를 갔다가 강릉으로 오는 길이다. 그녀는 술 담배도 잘 안하는 청백리에다가 가정적인 공무원 남편과 살지만 왠지 행복한 것만은 아닌 어조로 말을 하고 있다. 남성 중심의 가부장제 사회에서 친정의 병간호로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이별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나는 그녀가 이미 타인일 수 없

30) 존재자는 '주체적으로' '의식' 안에서 자신을 실현하지만 타자성은 '여성적인 것'을 통해 자신을 실현하는데, 여성적인 것이 존재하는 방식으로는 감춤과 수줍음 등으로 나타나며, 에로스적 관계야말로 타자성과의 관계이며 신비와의 관계인 것이다. - 엠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역,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107~108쪽.

31) 작가에게 칠번 국도는 여행의 주요 코스이다. 봄마다 속초-강릉-경주 간을 십여년을 다닐 정도로 해안도로를 사랑하는 윤대영은 이 소설에서도 칠번 국도를 '신라의 푸른 길', '땅과 바다가 만나는 영원의 길'로 묘사하고 있다. - 『그녀에게 얘기해 주고 싶은 것들』, 문학동네, 2001, 37쪽.

다는 집요한 유혹에 시달리고 둘 사이에 매듭 같은 게 생겼음을 깨닫는다. 나에게 관계형성은 맺음이며 그것을 풀기 위해 여행을 반복하지만 또다시 누군가와 새로운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다.

『피아노와 백합의 사막』에서의 증권회사 직원인 ‘나’는 두 아이와 날씬하고 현명한 아내, 좋은 차와 연간 일 회의 해외여행, 32평의 아파트를 가졌지만 상실감과 부채감으로 가득 차 있는 30대의 남자이다. 친구와의 사이에 사막이 생기고 사막의 의미를 알게 된 나는 삶이 무료해지고 허전함을 느낀다. 운명적으로 이어진 친구와의 단절은 부친파산으로 친구가 서울로 이사한 후 문예백일장에 참가하기 위해 상경해 재회하면서 느끼게 된다. 불량학생이 되어버린 친구는 생선을 파는 어머니와 낡은 피아노가 놓인 단칸방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피아노와 사막은 친구를 생각하게 하는 매개체이자 잃어버린 자아이다. 중학교 2학년 때 사막 때문에 사귀던 친구를 고등학교 2학년 때 재회한 후 거리가 생기고 16년간의 공백 동안 사막과 친구를 나는 잊게 된다. “어쨌든 나는 서서히 사막을 잊어갔다. 아니, 어쩌면 잃어갔던 것인지도 모른다”는 말처럼 시를 쓰던 나, 사막과 피아노를 치던 친구를 잃고 현실에 안주하고 타협하는 나로 살아가게 된 것이다. 군대, 결혼, 직장생활 동안 잊고 있었던 사막에 대한 기억이 우연찮게 다가오면서 찾아 나선 친구는 간경화로 죽음을 앞두고 있다. 나는 서안의 진시황릉, 화청지, 병마용을 보고도 지루하고 진부하게 느끼며, 초조함과 함께 줄곧 쫓기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다. 그리고 백합꽃이 피는 사막을 꿈꾸는 여류화가가가 “사실은 누구인지 나는 모르는 채” 몸을 섞는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서로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는 삶의 진실, 인간관계란 늘 끊어지고 이어지고 새로운 만남을 형성하지만 그 순간에도 일체를 이루지 못하는 허망함을 가지는 것이다. 관광도 답사도 아닌, 그저 사막을 보기 위해 즉흥적으로 결정한 여행 중의 피로는 일탈행위로 여행자를 이끈다. 난

주에 오자 나는 “서울에서의 일들이 마치 전생의 일처럼 까마득하게 생각”되었고, 여자가 있는 가무청이라는 술집에서 생리할 때의 여자 냄새로 괴로워하는 여류화가의 존재를 알게 된다. 누군지도 모르는 그녀와의 관계 도중에 나는 무섭다는 생각을 하게 되며 죽음의 땅인 사막에서 죽음의 냄새를 느끼고 고열과 식은땀을 흘린다. 여성과의 관계맺음이라는 상징적 제의 후 남성은 자신을 살해하고 재탄생³²⁾한다. 사막으로 상징되는 사람과의 ‘거리’³³⁾ 유지는 90년대의 나약하고 무책임한 개인에게는 버거운 것이다. 여행자는 가족과 집, 일상을 무시하며 이쪽/저쪽, 차안/피안의 세계에서 후자를 지향하고 있다.

『눈의 여행자』에서의 나는 외사춘누이와의 근친상간으로 얻은 자식과 헤어지고 난 후 상실과 고독감으로 살고 있다. 친부모에게 사랑을 받지 못한 채 비정상적으로 성장한 외사춘누이와 미성숙했던 자신과의 불완전한 사랑이 결별을 가져온 것이다. 아이와의 헤어짐은 아버지를 하지 못하고 사는 나의 삶을 정착하지 못하고 방향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딸아이를 잃은 여성독자는 아이를 화장시킨 후 아이의 이

32) 세 편의 여행지는 바닷길, 사막(모래의 바다), 설국(눈)이다. 물의 상징은 죽음과 재생을 동시에 포함하며 물에 닿는 것(여성과의 일탈)은 부활을 의미한다. 또한 세례에 의한 가업식의 죽음을 새로운 인간의 탄생으로 인정된다. -M. 엘리야데, 『성과 속』, 한길사, 1998, 131~141쪽.

33) ① 불려도 서로 들리지 않는 멀찍한 거리에서 우리는 만난다. 가끔은 팽팽해지기도 하고 느슨해지기도 하는 그 거리의 아름다움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모두가 타인이며 또한 이렇게 모두가 타인이 아니다. - 『신라의 푸른 길』(59쪽)

② 사막은 가령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너와 나 사이에 팽팽하게 지속되고 있던 긴장의 끈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그리하여 아득한 거리로 서로 밀려나면서 그 사이에 황량한 모래벌판이 가로 놓이게 된다. - 『피아노와 백합의 사막』(256쪽)

③ 『사막의 거리, 바다의 거리』에서도 작가의 관계 형성의 시각이 잘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엔 반드시 일정한 거리가 있어야 한다고 나는 믿고 있는 편이다. 좀 억지스런 말이지만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사랑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 『남쪽 계단을 보라』, 세계사, 1995, 206쪽.

열 개를 가지고 눈 쌓인 곳마다 이를 하나하나 파묻는다. 아이를 상실한 어머니(독자)와 아들을 잃은 아버지(소설가)의 마음은 동일시되고 나는 여행 내내 눈의 소리와 함께 아이의 울음소리에 시달린다. 여성독자의 실종된 아이를 찾는 일은 곧 자신의 아이를 찾는 것이었고, 죽은 딸과 결별하지 못하고 실성한 어머니는 다름 아닌 자신의 불안하고 고독한 자아였던 것이다.

마지막 여정은 사연을 보낸 한국인 부부와 자신의 아들 ‘수’와의 만남으로 끝이 난다. 여행의 출발지였던 술집 ‘설의 음’에서 나는 딸과 딸을 상실한 어머니를 만난다. 딸아이를 보내지 못한 채 슬픔과 절망으로 가득 찬 아내를 위해 남편이 소설가를 부른 것이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소설로 써달라고 청원한다. 남편은 사람을 구원하는 게 글 쓰는 일이 아니냐면서 딸아이가 들어가 살 수 있는 눈으로 만든 조그만 집을 하나 지어달라고 한다. ‘눈으로 만든 얼음집’인 ‘가마쿠라’라는 말을 들은 아내는 비로소 말문이 트인다. 독자 부부를 만난 후, 나는 여섯 살이 된 아들과 짧은 재회를 한다. 아들 ‘수’는 내가 아버지인지도, 그동안 눈 속을 헤매며 찾고 있었던 것이 자신이었던 사실도 모르고 있다. 나는 자신이 아이들에게 얼음집을 지어 살게 하는 사람이라고 아들에게 소개한다. 그리고 외사촌누이에게서 아들에게 아빠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나는 아이를 만남으로써 구원의 느낌을 받았고, 한때 아녀자를 폭행하고 아이를 유기했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 함께 살 때 트집을 잡거나 싸움을 걸어왔던 외사촌 누이와의 대화를 거부했던 나는 이제야 그녀의 재혼과 이별을 받아들이고 타자성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신라의 푸른 길』에서는 아내와의 관계가 과거회상으로 간략하게 그려진다. 아내의 불임주장이 길 위에 머물고 있는 자신의 생각이면서도 나는 아내를 이기적이고 욕망이 강한 여성으로 여기며 떠나보낸다. 『피

아노와 백합의 사막』에서의 나 역시 아내를 닮은 두 아이를 두고 있지만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과거와 친구를 찾아 사막을 방황하고 있다. 이 시기의 소설에 나타나는 여행자의 피상적·회피적인 자세는 『눈의 여행자』에 와서 변화된다. 여전히 아내와 불화하고 여행을 다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아이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고 있다. 처음에는 유산을 원하다가 탄생한 아들에 대한 애착과 결별에 대한 슬픔을 통해 나는 자아회귀에서 벗어나 타자를 수용하게 된다.

여행자는 일본으로 출발하기 전부터 도쿄에 살고 있는 누이에게 전화를 하며, 여행 중에도 계속 통화로 실패하자 슬프고 우울해지며 실종하고 싶은 마음까지 갖게 된다. 전화를 받지 않는 누이에게 자동응답 메시지를 남김으로써 간신히 연락이 되는데, 여행자의 적극적인 소통에의 노력이 관계회복으로 이어진다. 아이는 타자가 된 나이므로, 아이의 존재를 수용하며 누이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아이를 만난 일본여행에서 나는 상처를 치유하고 누이도 평온을 되찾는다. 이 소설은 아이에 대한 집착과 관심으로 시작되는데, 서울에서의 에이전시 직원이 데려온 병어리 소녀와 여행 중에 만난 여성의 이름이 ‘사와구치 아이(愛)’인 점, 여성독자의 실종된 아이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겹쳐진다. 레비나스는 타자적인 것의 발견은 아이의 출산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봄으로써 아버지가 됨으로써 이기주의, 나에게로의 영원한 회귀로부터 해방³⁴⁾ 된다고 하였다. 현실도피로서의 여행을 선택한 여행자의 태도는 마흔의 나이를 먹어가면서 문학에 대한 옹호와 타자에 대한 관심이 돌아오고 있다³⁵⁾고 작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듯이 타자의 타자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34) 엠마누엘 레비나스, 앞의 책, 147쪽.

35) 문혜원, 『울트라 마린 블루, 흔들리는 그 빛깔』, 『문학사상』, 2000.3월호, 243쪽.

5. 요약

윤대녕은 일관되게 여행소설을 발표하는 90년대의 대표적인 작가이다. 유랑기질을 지닌 작가에게 여행은 문학적 원천이자 삶의 의미, 관계 맺음, 불화 극복을 위한 계기가 된다. 또한 여행구조는 자기동일성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의 낯선 타자와의 조우를 위한 문학적 장치이다. 일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여행욕망과 여행구조는 자신의 변형된 자아의 존재인 여성타자와의 만남을 위한 모티프이다. 『신라의 푸른 길』, 『피아노와 백합의 사막』, 『눈의 여행자』에서의 여행은 비진정성의 피곤한 현실 공간을 일탈해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 관계맺음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시공간을 확보한다.

깊은 슬픔과 고독에 빠져 있거나 관계형성에 미흡하고 미성숙한 여행자는 사람과의 관계를 ‘사막’ 혹은 ‘거리’로 여기며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채 상처치유와 휴식의 여행을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도 하지 못하고 돌아올 뿐이다. 여행자는 바닷길, 사막, 설국과 같은 판타지 공간에서 분신 혹은 자아 속의 타자를 만나 일탈하지만 성적(性的)·성적(聖的) 이미지가 혼효된 여성은 동일자이면서도 신비하고 에로스적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타자이다. 『신라의 푸른 길』에서 아내가 불임을 주장하거나 『피아노와 백합의 사막』에서의 아내를 닮은 아이들을 통해 여행자는 자기동일성을 찾지 못하고 길 위에 서있다.

그러나 실험적인 여행소설인 『눈의 여행자』에서는 여성타자의 타자성을 수용하고자 하는 작가의 여성인식과 삶의 태도가 보이고 있다. 『신라의 푸른 길』, 『피아노와 백합의 사막』에서는 아버지를 찾거나 낯선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동일성을 발견하거나 자신을 성장시켰다면 이 소설에서는 아들을 찾거나 아내와 소통하게 되면서 자신으로부터의 영원한 회귀에서 해방되고 있다. 가족, 집, 가정보다는 길 위, 여관, 차안에

서 머물던 여행자는 여전히 정주에 실패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극복의지가 보이며 타자에게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만세전』, 『무진기행』과 같이 문학사적 자리매김을 하는 장르문학으로 계보를 이으며 여성의식의 변화를 보인다는 점에서, 윤대녕 여행소설에 대한 다양한 실험정신과 여성주의적 행보를 기대하게 한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윤대녕, 『남쪽 계단을 보라』, 세계사, 1995, 35~61쪽, 251~307쪽.
 _____, 『눈의 여행자』, 중앙M&B, 2003, 1~280쪽.

2. 단행본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한국문학과 여성』, 아세아문화사, 2000, 117~138쪽.
 우찬제, 『타자의 목소리』, 문학동네, 1996, 422~439쪽.
 이미림 외, 『우리시대의 여행소설』, 태학사, 2006, 172~189쪽.
 이종영, 『가학증 타자성 자유』, 백의, 1996, 1~167쪽.
 황국명, 『전환기 소설의 지형』, 세종출판사, 2001, 121~138쪽.
 낭왕, 이진형 외 역, 『관광과 근대성』, 일신사, 1994, 1~392쪽.
 데이비드 브룩스, 형선호 역, 『보보스』, 동방미디어, 2001, 1~292쪽.
 던 맥켄널, 오상훈 역, 『관광객』, 일신사, 1994, 1~272쪽.
 리타 펠스키, 김영찬 외역, 『근대성과 페미니즘』, 거름, 1998, 1~379쪽.
 M.엘리아데, 이은봉 역, 『성과 속』, 한길사, 1998, 1~237쪽.
 빈프리트 뢰쉬부르크, 이민수 역, 『여행의 역사』, 효형출판, 2003, 1~278쪽.
 시몬느 비에른느, 이재실 역, 『통과제의와 문학』, 문학동네, 1996, 1~214쪽.
 임마누엘 레비나스, 강영안, 『시간과 타자』, 문예출판사, 1996, 5~182쪽.

자끄 아탈리, 이효숙 역, 『호모 노마드 유목하는 인간』, 웅진닷컴, 2005, 1~533쪽.

3. 논문

- 고명철, 『포일적 소설쓰기의 현상학에 대한 시론』, 『문학과창작』, 1999.3, 181~201쪽.
- 구모룡, 「사로잡힌 자의 비극적 감성:윤대녕론」, 『소설과사상』, 1997. 봄호, 247~263쪽.
- 김경수, 「1990년대 여행소설의 한 특징」, 『소설 농담 사다리』, 역락, 2001, 26~37쪽.
- 김명석, 「한국현대소설 속의 돈황」, 『현대소설연구』 제25권, 한국현대소설학회, 2005.3, 103~123쪽.
- 김윤식, 「시원을 찾아 거슬러가는 생리적 상상력: 윤대녕론」, 『작가와 대화』, 문학동네, 1996, 289~302쪽.
- _____, 「기행소설과 그 수준」, 『소설과 현장비평』, 새미, 1994, 125~136쪽.
- 남진우, 「존재의 시원으로의 회귀」, 『은어남시통신』, 문학동네, 1994, 287~314쪽.
- 김주연, 「차가운 시간과 자기동일성에의 열망:윤대녕론」, 『동서문학』, 1997. 겨울호, 219~235쪽.
- 류준필, 「부재로서만 빛나는 세계」, 『문학동네』, 1995. 겨울호, 65~81쪽.
- 문혜원, 「울트라 마린 블루 흔들리는 그 빛깔」, 『문학사상』, 2000.3, 234~243쪽.
- 박철화, 「역사로부터의 탈출과 역사의 도피」, 『문학적 지성』, 이룸, 2004, 219~233쪽.
- 윤숙영, 「윤대녕 소설의 원형적 이미지 연구」, 『동국어문학』 제15권, 2003, 277~327쪽.
- 이남호, 「은어는 없다」 『세계의 문학』, 1997. 봄호, 476~499쪽.
- 이재복, 「동양적 존재의 숲: 윤대녕론」, 『소설과사상』, 1996. 겨울호, 202~219쪽.

- 이정욱, 「윤대녕 소설에 나타난 여행의 의미 연구」, 단국대 석사학위논문, 2003, 1~73쪽.
- 한만수, 「먹고살기와 존재찾기」, 『창작과비평』, 1999. 가을호, 361~370쪽.
- 황도경, 「미끄럼틀 위의 삶 혹은 소설」, 『작가세계』, 2001. 겨울호, 113~124쪽.

Abstract

The Study of Journey's structure and Autre(Women) in the
Novels by Yun Dae-nyeong

- With a focus on his '*The Blue Road of Shilla*', '*The Desert of the Piano and Lilies*', and "*The Traveler of Snow*"

Lee, Mi-rim

Devoted to the search for ego, the 1990s saw the publication of a good number of travel novels, in which the weak main characters were wandering around, along with the disappearance of grand narratives. Following the structure of returning to the original point in the sequence of settlement, leaving, and settlement, travel novels are part of the genre fiction claiming their place in the literary history with '*Mansejeon*' and '*Mujinghaeng*'. After capitalism settled down, there appeared a new kind of travelers who showed the Bobos characteristics in the digital age and wished to leave the cities of no true feelings. As a repeating writer that built a consistent world of his works through travel novels, Yun Dae-nyeong has been highly evaluated for such thematic ideas as the sensitivity of the 1990s, characteristics of aesthetics of literary styles, and returning to the beginning of existence. In this study, however, it was noted that the themes of his literary works also included the absence of communication between the family and its members or between individuals(especially women), who got their wounds in the 1990s, difficulty with creating relationships, and

unstable marriage life. Encounters with women on the road would bring self-incestuous love or despair to the heroes and provide no fundamental solutions to their problems. Employing the images of Yin such as woman, the moon, desert, snow, and winter, Yun emphasizes the needs for feminine images in the contemporary time. But, in the eyes of the postmodern male travelers, women would merely go through the process of dichotomy and othering between the angels and witches or between the ladies on the road and wives. As the male travelers steal a glance at the ladies on the road, they are idealized as the ladies of religious faith or salvation and thus fail to represent the self-regulating femininity. Despite those aspects, Yun's literary works made a contribution to the establishment of the genre fiction called travel novels in the 1990s and claim significance in that he made constant attempts to write innovative and experimental travel novels like "*The Traveler of Snow*". Furthermore, the changes to his works such as the efforts to recover the relationships with the family and home by moving from searching for the fathers or women to searching for children and from fantasy to reality, made the readers have expectations for the diverse possibility of travel novels later.

Key words : travel novels, creating relationships, absence of communication, postmodern male travelers, repeating writer, symbolism of sea, desert, and snow, altérité de l' autre, scopophilia

■ 본 논문은 4월 30일 투고되어 5월 1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5월 2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